

9/28(화) 데살로니가후서 묵상 5

데살로니가후서 2:5-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종말에 관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종말 때에 징조 중에 하나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지만 그의 활동은 제한적이고 결국에는 재림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와 막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종말의 징조로 나타날 교훈을 이미 전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 그들에게 종말과 재림에 관한 교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교훈에 대한 잘못된 교훈에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의 성도들에게 있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6-7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이유는 그의 출현을 ‘막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살전 1: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해진 시기에 활동하겠지만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한다’는 것은 불법의 활동을 시행하는 주체는 사탄이지만 그의 사역은 ‘막는 자’로 인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렘 23:25-27,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 꾸는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도 이러한 불법적인 세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바울의 말씀과 같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9-10절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9-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첫째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 부여 받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많은 자들이 미혹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심지어 배교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살후 2:3상,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음

10절에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롬 2:5-6,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최종적인 재림의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미혹의 역사를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11-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인간의 책임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예정론이 다른 타종교의 운명론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딤후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지만 인간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종말의 때가 신자들에게 있어 무조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정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으시고 제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종말의 궁극적인 승리자는 재림의 주요 심판의 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가 아닌 지금도 일부 허용된 사탄의 활동은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상황을 돌아볼 때 일부 지역에서는 초대 교회와 같은 복음의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단의 미혹과 세속적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서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박해 받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 전세계의 공산주의와 이슬람 지역에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신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영상미디어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미얀마 채우리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